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11월 1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10)-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 롯 4:1~12
-

롯기는 망원경과 같은 책임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롯이 겪었던 고난만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4장까지 전체를 바라보면 그 고난 뒤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계획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갇히지 말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타작마당이라는 은밀한 장소를 떠나 성문이라는 공개적인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는 장로 열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기업 무르는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롯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롯을 존중했고 그녀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받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보아스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보아스보다 기업 무를 권리가 앞선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책임을 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롯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손해를 염려하며 그 책임을 거절합니다. 롯기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책임을 외면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만 누리려 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순종의 책임은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원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는 피하고,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누락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가 두렵고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믿음은 눈앞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나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2. 보아스는 뜻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편의와 유익보다 상대방의 존엄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3.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 나는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는 일을 피한 적은 없습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 가운데 지금 다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 삶 사이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5.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 나는 구원과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순종과 헌신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Intro> || E E/D# | C#m /B | A | A/B ||

민호기, 이현임, 김요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 주께서 - 참 소망이 되심이 - 라 하나님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 주께서 - 참 기쁨이 되심이 - 라



꿈이 -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님의 권능이 - 나의 능력이 되길 - 원하고 - 바라고 - 기도 합니다 -